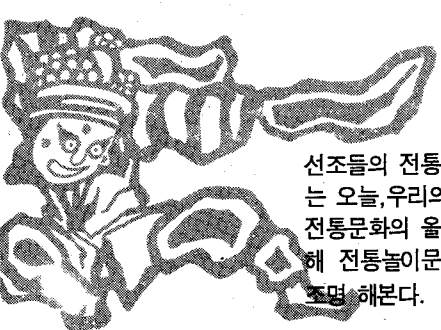


선조들의 해학, 우리들의 자화상

독자투고 봉산탈춤에 나타난 미의식 고찰



선조들의 전통예술이 점점 소멸되는 오늘날, 우리들의 전통을 계승시켜 전통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전통놀이인 봉산탈춤을 재조명 해본다. <편집자註>

I. 서론

우리의 민속놀이에는 상부상조와 협동단결을 의미하고, 평등의식과 향토정신을 함양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하는데, 과감한 태도를 보인다. 단속한 오락행사가 극에 이르는 발전, 그리고 예술로까지의 발전과정이, 민중생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고, 민중의식의 성장이라는 불가결한 것이었다. 민중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의식을 함양하고, 삶에 어울리는 한과, 고통을 풀어내는 놀이를 통해, 삶을 긍정하게 하는 민중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봉산탈춤이 있다.

II. 본론

탈춤의 형성은 국가적인 행사와는 별도로 민중적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른 시기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의 단순한 가면놀이에서, 18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도시의 발전된 탈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탈춤이 극으로의 발전은, 민중생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고 민중의식의 성장이라는 불가결한 것으로 보며, 사회적인 비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탈춤의 의미들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에서, 신분적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됨을 잃고, 초월적인 무관심을 표출하는 불교를 한꺼번에 비판함으로써,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역사적 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가면극의 대표적인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탈춤 속에 담긴 우리의 해학과 멋, 그리고 그 속의 민중의식을 도출해 오늘날의 사회로 수용해 보고자 한다.

1) 놀이의 성립 및 개관

봉산탈춤은 해서일대에 분포된 탈춤의 하나로, 서쪽 평야로 향하는 길에서, 봉산을 중심으로 뒀던, 안락, 재령, 은율, 신천, 연백 등지의 황해도 전역에서 널리 행하여져 오던 해서탈춤의 대

표적이 되는 탈춤이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농민들과 수공업 생산물의 교역 및 소도시로서, 탈춤의 전통을 잇는 데에 한 역할을 맡고 있다. 봉산탈춤은 연중행사의 하나로, 5월 단오날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음날 새벽까지 연희하였고, 그날 하루 민중들은 머슴들도 잔치에 참가 시키기 위하여, 돈을 주어 놀게 하였다 한다.

탈춤은 정암루라는 정자 아래에, 다락을 지어 둘러 쌓고 하고, 그 한가운데서 탈춤을 하였다. 탈춤에 있는 놀이들은, 민중의식을 함양하고, 민중의식을 함양하고, 삶에 어울리는 한과, 고통을 풀어내는 놀이를 통해, 삶을 긍정하게 하는 민중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봉산탈춤이 있다.

탈춤의 형성은 국가적인 행사와는 별도로 민중적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른 시기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의 단순한 가면놀이에서, 18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도시의 발전된 탈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탈춤이 극으로의 발전은, 민중생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고 민중의식의 성장이라는 불가결한 것으로 보며, 사회적인 비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탈춤의 의미들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에서, 신분적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됨을 잃고, 초월적인 무관심을 표출하는 불교를 한꺼번에 비판함으로써,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역사적 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가면극의 대표적인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탈춤 속에 담긴 우리의 해학과 멋, 그리고 그 속의 민중의식을 도출해 오늘날의 사회로 수용해 보고자 한다.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이렇게 쓰이는 양반이올씨다”

을 모두 불러들여 탈춤을 지어냈다 한다.

봉산탈춤 보존회장 김경영 씨의 답 제책

2) 놀이의 구성 및 사상

봉산탈춤의 구성은 전7과장으로 되어있다.

제1과장 ‘사자무’

신의 내력을 칭찬하고 탈춤의 무사와 관객의 안목을 비는 의식무이며, 장가를 번짐하게 하는 판이름과, 사자를 번짐하는 중요한 역할의 장이다 할 수 있다.

제2과장 ‘머슴무’

불도를 닦는 중으로서, 속세에

내려와 인간들의 즐거운 흥을 이기지 못하여 젊음을 파시하는, 그리고 욕구 불만을 폭발시키는 춤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머슴무는 타령장단에 맞추어 댕고 돌리는 한삼의 사위춤에서, 고개지고 어깨춤은 숨죽였던 긴장이 풀려지는, 이때 모두가 ‘일쑤’ 소리와 함께 미적지덕을 하게 된다.

화려한 의상과 작곡의 가면들, 그리고 삼현육각의 풍악에 맞추어 온몸으로 정열을 발산하는 사위춤은 가히 장관을 이룬다.

제3과장 ‘사당무’

구경거리 즉 불거리를 제공하는 과장이며, 다음과 같은 춤을 예연한다.

제4과장 ‘노장무’

과제춤에 대한 풍자이며, 관

제5과장 ‘사자무’

머슴들을 정열하게 위해 찬상에서 내려와 사자이며, 잘못을 회개한 머슴과 한관 신나게 는다.

제6과장 ‘양반무’

이 과장은 민중적인 한겨울의 장으로, 특권층의 특권을 정면으로 부인할수도 충동할수도 없는 감동을, 말쑥이 통해 맞서는 민중적인 한겨울의 희극이다.

제7과장 ‘미달무’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미달무는 가장 서민적이고 구경꾼과 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며, 민중들의 가난한 삶, 고통받는 삶, 희극적 묘사이다.

양반관계를 풍자한 것으로, 이러한 것을 양반을 시켜서 풍자하면 양반의 체면이 깎이므로, 미친한 계급인 양반과 고리장이를 등장시켜 풍자한 것이다.

탈춤에는, 원색적이면서도 참스런 그들의 애환과 함께 고유한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절실한 소망이 있다.

그런가 하면 희화와 상징적인 욕구가 발산되며, 그들의 풍자말이 있다.

봉건적 윤리나 가족제도에 대한 폭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 스스로 인간 평등의식을 일깨우고 있는 점으로, 서민의 사회제도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생활 풍속과, 참되고 오랜 전통미를 찾아볼 수 있다.

미달무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극히 추하고, 투박스러우며, 탈춤하고, 매우 저속한 감미로 있다.

대사장에서 긴요한 구절만 인용한다.

미달: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

영감: 아! 우리영감 참 잘생겨 자빠졌!

영감: 네 이년!</